

김민지

서울 영등포구 2-5 김민지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음

제목 : 동생과 재미있게 놀다

동생과 첫번째 놀이로 공놀이를 했다.

문이 좋아서 할때마다 동생을 맞추었다.

하지만 동생은 한번도 나를 맞힌 적이 없었다.

결국 10대 0으로 내가 이겼다. 나는

나는 좋았지만, 동생은 힘들어 보였다.

엄마가 쉬라고 간식을 준비해 주셨다.

동생은 주스와 가래떡이었다.

또 다른 간식은 방울토마토와 푸딩, 가래떡이었다.

간식을 배부리 먹고 나서 컴퓨터 게임을 시작했다.

처음에 '옷입히기' 게임으로 들어가서 옷입히기 게임을 했다.

그런데 동생은 다른 거 하고 싶다고 난리를 쳤다.

남동생이라서 그런가 보다.

여동생이면 아닐 텐데 말이다.

동생은 심심해서 거실로 가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했다.

동생은 과자를 좋아해서 동생이 과자를 가지고 오기 때문

에 종종 컴퓨터를 할때 과자를 먹었다.

그때마다 엄마가 과자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

아마 동생도 과자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다.

그런데 왜 먹는 걸까? 정말 궁금하다.

암튼 내 동생이 정말 좋다.

